

# 나주시 예산 조작 파문

## 의회 동의 없이 시장 판공비 ↑ 미화원 인건비 ↓

나주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2007년 본예산안을 임의로 조작해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나주시의회 제 114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광연 의원은 “나주시 본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달리 임의적으로 조작돼 집행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이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늘리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목욕비, 공무원 인건비 등을 감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하위공무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비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나주시는 올해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300만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천700만원 ▲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천142만원 등 1억2천478여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 나주배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730만원에 불과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5천280여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1억4천549만여

원을 의회 동의없이 증액시켰다.

반면 ▲나주 소식지 제작비는 8천만원→4천만원 ▲우편발송 봉투제작비는 1천200만원→600만원 ▲우편발송료는 1천760만원→880만원 ▲9급(10호봉) 인건비는 7억9천315만원→6억7천343만 등 2억5천151만원을 임의로 감액시켰다는 것이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법정 의무 기준 이하 예산과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비와 시 본청 업무추진비 등 총 1억1천664만원을 누락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알려진 실제 예산 증감액과 해명 내용에 차이가 있고, 9급(10호봉)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수를 53명에서 45명으로 계산해 공무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신정훈 나주시장은 본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공무원 대책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몇 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필기자 srchoi@

## ‘우울증 가족’의 비극

### 4명 중 3명이 증세...장남 자살 ‘눈물 바다’

네 식구 중 3명이 우울증을 앓아 온 가정의 장남이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7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W아파트에 사는 채모(41)씨가 9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채씨는 최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28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 용하다는 병원을 모두 다녀왔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어머니

(66)도 우울증에 걸렸다. 여동생(38)은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등 오빠의 정신질환이 장파해 친구들과 거리감을 두면서 우울증에 빠졌다.

채씨와 여동생은 간신히 고교만

졸업했다. 취직과 결혼도 못해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에 의존해 살아왔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도 하지 않았고, 매년 수백만원

이 넘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했다. 퇴직 후에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해 오면서 빚도 많이 졌다.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아버지는 통곡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증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농협 본인 확인안고 비밀번호 바뀌줘

## 노숙자 흡친카드로 돈 인출

광주시내 금융기관들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줬 절도범이 다른 사람의 카드에서 돈을 빼내갔다.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흡친 현금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2곳에서 현금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틀린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자인 백씨는 지난 1월1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사무소에서 현금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틀려있는 공익근무요원 양모(22)씨의 지갑을 훔친 뒤 광주은행 문흥동 지점과 농협 일곡동 지점 등 두 곳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 두 차례에 걸

쳐 모두 19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백씨는 흡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양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백씨와 피해자의 용모가 달랐지만,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지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밝혀져 신분 확인절차에 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범인의 용모 등을 분석, 백씨를 붙잡았

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 방법용 CC-TV 확대

### 전남경찰, 303대 추가 설치키로

방법용 CC-TV가 각종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전남경찰이 전남도 내 주요지점에 방법용 CC-TV 303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설치 대상지역은 ▲나주 16대 ▲강진 13대 ▲담양 11대 ▲보성 10대 ▲영암 9대 등 강·절도 사건 우범지역 등 156개소다.

이번에 설치될 CC-TV는 대당 가격이 1천200만~2천400만원으로, 줌(Zoom)과 회전 기능·비상벨 시스템 등을 갖췄다. 사업비는 총 21억8천860만원으로, 일선 시·군이8억3천260만원, 전남도가 13억5천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시·군에 설치될 방법용 CC-TV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된 463대를 포함해 모두 766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16개소에 32개의 방법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 중심지역을 누리는 3,813 최대면적! 889㎡ 2+2층 광복 2세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082) 367-9000



광주시 승마협회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돌려주세요. 열흘 된 새끼들이 있습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서구 영주동 승마장 입구에 내걸고 애타게 어미개를 찾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베리안 허스키 돌려주세요”

### 광주시 승마협회, 어미개 도난당해

### 새끼 다섯마리 젖달라고 ‘깡깡’ 곤욕



어미개를 애타게 찾고있는 강아지들.

광주시 승마협회(회장 이상욱)가 서구 영주동 승마장에서 기르던 어미개를 도난당해 애태우고 있다.

승마협회가 두 살 난 시베리안 허스키 암컷 ‘루루’를 잃어버린 것은 지난 7일 밤. 평소 개 줄에 묶어놓는데, 지난달 28일 새끼 다섯 마리를 난 후 몸조리를 하던 중이어서 풀어 놓다 보니 생긴 사고였다.

승마협회 직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편으로 어미개를 찾고, 다른 한편으로 젖먹이 새끼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3시간마다 우유를 주는 등 어미개를 대신해 새끼들을 보살폈다. 승마장 앞에 ‘시베리안 허스키를 돌려주세요’란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시베리안 허스키(Siberian Husky)=시베리아의 최북단에 살았던 처키(chucki)족이 3천 년간 키운 에스키모 견으로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도 썰매를 끄는 명견이다. 평균 수명은 10~14년. 암컷은 51~56cm·16~23kg, 수컷은 54~60cm·20~27kg 정도까지 크다. 순종적이며 용기가 있고, 집단생활을 잘한다.

처음에는 눈도 뜨지 못했던 새끼들이 10여 일이 지나자 제법 재롱을 피울 정도로 컸다. 하지만 어미개의 보살핌이 필요할 듯 밤이면 깡깡대며 칭얼대기 일쑤였다.

승마협회는 결국 이들 새끼를 지난 16일 오후 시민들에게 분양했다. 집에 데려다 키우는 것이 새끼들을 더 건강하게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욱 승마협회장은 “지금이라도 루루가 돌아오면 어린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게 할 생각”이라며 “누군가 개를 데리고 있다면 새끼들을 생각해사라도 꼭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 나원침 (7264) 김장동



다들 좋아하잖아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로 대우 KCC향토·시설팀형성·생산·시공

車 도둑 “돌려줄게 차값 1% 달라”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훔친 뒤 돌려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요구한 차도둑이 달미.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33·순천시 해룡면)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해룡면 상삼리 B주차장에 세워진 이모(여·39)씨의 라비타 승용차에서 이씨 남편(41)의 체어맨 의석을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16일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순천시내 9곳의 공중전화를 돌려 전화를 걸어 “현금 50만원을 주면 차를 돌려주겠다”고 제의했다가 돈을 받기로 한 생목동 O마트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것.

○김씨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차 가격의 1%만 요구했다”고 진술.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p><b>해운대 호텔</b> 전화번호: 1388-1557 후불: 515-1500</p> <p>해운대 호텔 객실: 1100여개 해운대 호텔 레스토랑: 1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해운대 호텔</b> 전화번호: 1388-1557 후불: 515-1500</p> <p>해운대 호텔 객실: 1100여개 해운대 호텔 레스토랑: 1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해운대 호텔</b> 전화번호: 1388-1557 후불: 515-1500</p> <p>해운대 호텔 객실: 1100여개 해운대 호텔 레스토랑: 1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해운대 호텔</b> 전화번호: 1388-1557 후불: 515-1500</p> <p>해운대 호텔 객실: 1100여개 해운대 호텔 레스토랑: 1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p><b>주유요금</b>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 해운대 호텔 주유소: 1100여개</p>
--	--	--	--